

《설문해자·서》역주(譯註) (상)<sup>\*</sup>  
A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ShuowenJiezi(說文解字)·Xu(敘)》 I

이병관(李炳官)<sup>\*\*</sup>  
Lee Byeong Kwan

<目 次>

1. 들어가기
2. 《설문해자·서》역주 (상)
  - 1) 한자의 기원과 역할
  - 2) 문(文)과 자(字)의 관계
  - 3) 육서(六書)의 정의와 그 예
  - 4) 자체(字體)의 변이(變移)

## 1. 들어가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설문해자》는 한자의 구조 및 뜻을 설명한 책으로서 중국 문자와 언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서적이다.

《설문해자·서》는 저자 허신(許慎)의 저술의 목적과 동기뿐만 아니라 주대(周代) 이전의 문자의 원류와 그 이후 한대(漢代)에 이르기까지 문자의 발전양상, 부수의 창립과 글자의 그 배열 원칙, 육서(六書)에 대한 정의와 분석 등을 밝히고 있어, 《설문해자》를 연구·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1)</sup> 따라서 이에 대한

<sup>\*</sup> 이 논문은 2013년도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sup>\*\*</sup> 공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본 논문의 《설문해자·서》의 원문은 북경 중화서국(中華書局)본 《설문해자》(1992)에 의거

역주 작업 역시 그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설문해자·서》는 대체로 15단락으로 나뉜다.<sup>2)</sup> 이번 역주에서는 편폭 관계로 제1단락에서 제4단락까지를 주해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1단락에서는 한자의 기원과 역할을 설명하였다.

제2단락에서는 문(文)과 자(字)의 관계를 밝혔다.

제3단락에서는 육서(六書)의 정의와 그 예를 제시하였다.

제4단락에서는 대전(大篆)에서 고문(古文)에 이르는 한자의 변이(變移)를 설명하였다.

## 2. 《설문해자·서》역주 (상)

[1] 옛날 포희씨(庖犧氏)<sup>①</sup>의 천하를 다스림에, 위로는 하늘에서 상(象)을 관찰하고 아래로는 땅에서 법(法)을 관찰하였으며<sup>②</sup>, 새와 짐승의 무늬와 땅의 모양새를 살펴보았는데<sup>③</sup>, 가깝게는 (사람의) 몸에서 취하고 멀리 있는 여러 사물에서 취하여, 이에 처음으로 《주역(周易)》 팔괘(八卦)를 만들어서, 법도의 형상(形象)을 보여주었다.<sup>④</sup>(「古者庖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視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易》八卦, 以垂憲象。」)

① '포희씨'는 중국 고대 전설상의 삼황(三皇) 가운데 한 사람이다.

계복(桂馥)은 《제왕운기(帝王韻紀)》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포희씨의 성은 風(풍)이다. 희생(犧牲)으로 부엌(庖)을 채우므로, 포희씨를 희왕(犧王)이라고도 부른다. 후대에 발음을 잘못하여 伏羲(복희) 또는 宓犧(복희)라고도 부르게 되었다.(「庖犧氏, 風姓也. 取犧牲, 以充庖

하였음.

2) 단락 구분은 탕가경(湯可敬)의 《설문해자금석(說文解字今釋)》(악록서사(岳麓書社) 2005년)에 의거하였다.

廚. 故號庖犧氏是爲犧王. 後世音謬. 故或謂之伏羲. 或謂之宓犧.)”(《설문해자의증(說文解字義證)》)

범문란(范文瀾)은 사실상 복희는 원시 목축 시대를 가리킨다고 하였다.(《중국 통사간편(中國通史簡編)》)<sup>3)</sup>

②단옥제(段玉裁)는 ‘法’을 ‘灋’으로 써야한다고 하였다.(《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 참고로 ‘法’은 ‘灋’의 금문(古文) 즉 예서체(隸書體)이다.

③탕가경(湯可敬)은 여기서의 ‘宜(의)’를 ‘儀(모양 의)’로 보았다.<sup>4)</sup>

④《주역·계사전(繫辭傳) 하》에 나오는 글귀로, 현재 전해지는 판본에서는 ‘以垂獻象(이수헌상)’ 부분이 “신명(神明)의 덕을 통하고, 만물의 성정(性情)을 분류하였다.(「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으로 되어 있다.

신농씨(神農氏)에 이르러 결승(結繩)으로 다스리고<sup>①</sup>, 그 일을 통괄하였는데, 많은 일들이 극히 번잡해지면서 꾸밈과 거짓이 생겨나게 되었다.<sup>②</sup>  
(「及神農氏, 結繩爲治, 而統其事, 庶業其繁, 飾僞萌生.」)

①《장자(莊子)·거협(胠篋)》에서 “옛날 용성씨(容成氏)·대정씨(大庭氏)·백황씨(伯皇氏)·중앙씨(中央氏)·율육씨(栗陸氏)·여축씨(驪畜氏)·헌원씨(軒轅氏)·혁서씨(赫胥氏)·전로씨(專廬氏)·축융씨(祝融氏)·복희씨(伏羲氏)·신농씨(神農氏) 등 그 당시에 백성들은 새끼를 꼬아서 썼다.(「昔者容成氏·大庭氏·伯皇氏·中央氏·栗陸氏·驪畜氏·軒轅氏·赫胥氏·專廬氏·祝融氏·伏羲氏·神農氏, 當是時也, 民結繩而用之.」)”라고 한 것을 보면 ‘結繩’ 즉 새끼줄을 묶어 매듭을 만들어 쓴 것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용성씨에서 신농씨까지 12사람은 모두 중국 전설상의 12제왕의 이름이다.

《주역·계사전 하》에서는 “옛날에는 결승(結繩)으로 다스렸는데, 후세에 성인(聖人)이 그것을 서계(書契)로 대체하였다.(「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易之以書契.」)”라고 하여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3) 향하(向夏), 《설문해자서강소(說文解字敘講疏)》, 홍콩: 중화서국(中華書局) 1986년, p.9에서 재인용.

4) 湯可敬, 앞의 책 p.2165.

《주역정의(周易正義)》에서 정현(鄭玄)의 주장을 인용하여 “일이 크면 그 새끼 줄을 크게 묶고, 일이 작으면 작게 묶는다.(「事大, 大結其繩; 事小, 小結其繩。」)”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단지 추측일 뿐 그 실상은 자세히 알 수 없다.

‘結繩’은 어떤 일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일 뿐 문자는 아니므로 중국 문자의 기원을 ‘結繩’에서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②《설문해자주》에서는 ‘繁(번)’을 ‘𦉳’으로 썼다.

또 단옥재는 ‘其繁(기번)’에서의 ‘其’를 《순자(荀子)·중니(仲尼)》에서의 ‘纂(기)’와 같다고 하면서, ‘纂’는 ‘極(극)’과 같은 뜻이라고 하였다.

황제(黃帝)<sup>①</sup>의 사관(史官) 창힐(倉頡)<sup>②</sup>이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그 무늬가 서로 다른 것을 알게 되어, 처음으로 서계(書契)를 만들었다.<sup>③</sup> 여러 가지 일들은 이로써 다스려지고, 만물은 이로써 살피게 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주역》의 <괘괘(夫卦)>에서 취한 것이다.<sup>④</sup> “夫, 궁정에 휘날리다”<sup>⑤</sup>라고 한 것은 문자가 왕실과 조정에 교화(教化)의 역할을 하였다는 말이다. 군자는 이것으로써 녹을 베풀어 아래에까지 미치게 하였고, 덕에 머무르며 곧 조심하였다.<sup>⑥</sup> (「黃帝之史倉頡, 見鳥獸蹏迹之跡, 知分理之可相別異也, 初造書契. 百工以父, 萬品以察, 蓋取諸夫. “夫, 揚于王庭”, 言文者宣教明化於王者朝廷, 君子所以施祿及下, 居德則忌也.」)

①‘黃帝’는 중국 고대 오제(五帝) 가운데 한 사람이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는 <오제본기(五帝本紀)>로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黃帝이다.

②‘倉頡’은 ‘蒼頡’이라고도 쓴다. 이에 대해 단옥재는 “내 생각에, 《광운(廣韻)》에 이르기를 ‘倉씨 성은 倉頡의 후손이다’라고 하였으므로, 蒼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이다.(「按: 《廣韻》曰: ‘倉姓, 倉頡之後, 則作蒼非也.」)”라고 하였다.(《설문해자주》)

《설문해자계전(說文解字繫傳)》에서는 ‘蒼頡’로 썼다.

창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고 어느 시대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의

견이 분분하다. 황제(黃帝)의 사관이라는 설에서부터 상고 시대의 제왕이라는 설, 신농(神農)과 황제 중간 시대의 인물이라는 설 등 여러 가지이다.

③“창힐이 글자를 만들었다.(「倉頡作書」)”라는 기록은 《한비자(韓非子)·오두편(五蠹篇)》·《여씨춘추(呂氏春秋)·군수편(君守篇)》·《회남자(淮南子)·본경훈(本經訓)》 등에 보인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서 창힐이 한자를 창제했다고 그 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자는 그 문자의 속성상 한 개인이 만들거나 한 시기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그 때까지 전해지는 이야기를 서로 돌려가며 적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마서륜(馬敘倫)은 “여기에서 말하는 ‘書契’는 오늘날 말로 하면 ‘쓰고 새기는 것’에 해당한다. …… 그렇지만 書契는 결코 한 가지 일이 아니다. ‘書’는 사물의 모양을 기물(器物)에 쓰는 것을 말하고, ‘契’는 나무에 새겨서 숫자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此言書契, 猶今言寫刻. …… 而書契復非一事, 書謂寫物象於器, 契謂刻木識數」)”라고 하였다.(《설문해자육서소증(說文解字六書疏證)》)<sup>5)</sup>

④현재 전해지는 《주역·계사전 하》에서는 “白官以治, 萬民以察(「관리들은 이것을 가지고 다스리고, 만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살폈다」)”라고 되어 있다.

⑤《주역·괘괘》에 나오는 글귀.

⑥《주역·괘괘》에는 ‘所以(소이)’에서 ‘所’자가 없다.

계복은 《주역》 왕필(王弼)주(注) 본을 인용하여 ‘則忌(즉기)’에서의 ‘則’을 ‘明(명)’으로 써야 한다고 하였다.(《설문해자의증》) 이에 따르면 번역은 “덕에 머무르고 금기(禁忌)를 명백하게 하였다”로 된다.

이에 대해 왕균(王筠)은 “거덕(居德)은 그것으로써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고, 명금(明禁)은 그것으로써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居德所以修己, 明禁所以新民」)”라고 하였다.(《설문해자구두(說文解字句讀)》)

[2] 창힐이 처음 문자를 만들 때, 무릇 사물의 유별(類別)에 의거하여 형태를 본떴는데<sup>①</sup>, 그러므로 그것을 일컬어 ‘文(문)’이라 하고; 그 후 형태와

5) 向夏, 앞의 책 p.24에서 재인용.

소리가 서로 더해지니, 곧 그것을 일컬어 ‘字(자)’라고 한다.<sup>②</sup> ‘字’는 붙어나고 키워내서 점점 많아졌음을 말하는 것이다.<sup>③</sup>(「倉頡之初作書,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卽謂之字. 字者, 言孳乳而寢多也.」)

①단옥재는 “依類象形(의류상형)’이란 지사(指事)와 상형(象形) 두 가지를 말한다. 지사 역시 그 형태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依類象形, 謂指事·象形二者也. 指事亦所以象形也.」)”라고 하였다.(《설문해자주》)

②단옥재는 “形聲相益(형성상익)’이란 형성(形聲)과 회의(會意) 두 가지를 말한다. 형태가 있으면 반드시 발음이 있어야 하는데, 발음과 형태가 서로 도와 形聲이 되고, 형태와 형태가 서로 도와 會意가 되는 것이다. ‘그 후’란 창힐 이후를 뜻한다. 창힐 시대에는 지사와 상형뿐이었다. 그 후 文과 文이 서로 합하여 形聲이 되고 會意가 되었으니, 이것을 일컬어 字라고 한다.(「形聲相益, 謂形聲·會意二者也. 有形則必有聲, 聲與形相輔爲形聲, 形與形相輔爲會意. 其後, 倉頡以後也. 倉頡有指事·象形二者而已. 其後文與文相合, 而爲形聲爲會意, 謂之字.」)”라고 하였다.

‘文’과 ‘字’를 나누어 각각 하나의 뜻을 가지게 한 것은 《설문해자》가 처음이다. 허신이 자신의 책 이름을 《說文解字》라는 두 개의 술목구조의 결합으로 지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文’은 ‘무늬’, 즉 어떤 사물의 형상을 그려낸 것이므로 그것을 설(說)명할 수 있을 뿐이고, ‘字’는 ‘文’과 ‘文’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것을 나눌[解(해)] 수 있기 때문이다. 단옥재는 “내 생각에, 나누어 말하면 독체(獨體)를 ‘文’이라고 하고, 합체(合體)를 ‘字’라고 하는데, 합해서 말하면 ‘文字’라고 칭해도 된다.(「按: 析言之, 獨體曰文, 合體曰字; 統言之, 則文字可互稱.」)”라고 하였다.

이른바 ‘文字’라고 할 때 춘추(春秋)시대(B.C.770~B.C.476) 이전에는 ‘文’ 또는 ‘書’라고 하고, ‘字’라고는 하지 않았다. ‘字’는 ‘키우다’·‘길러내다’라는 뜻의 ‘滋(불을 자)’의 뜻으로 쓰이거나 사람의 이름 대신에 쓰는 별칭으로 쓰였다. ‘文字’를 함께 쓴 기록으로는 진시황(秦始皇) 낭야대각석(琅邪臺刻石)에 있는 ‘書同文字(서동문자)’가 그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설문해자주》에는 이 다음에 “文이란 사물 형상의 근본이요(「文者, 物象之本」)라는 글귀가 더 있다. 단옥재는 “다른 책에는 이 여섯 글자가 없는데, 《좌전(左傳)·선공(宣公) 15년》 정의(正義)에 근거하여 보충한다.(「各本無此六字, 依《左傳·宣公十五年》正義補。」)라고 하였다.

③왕균은 “《설문》 9000여 자 가운데 상형과 지사는 합하여 불과 380여 자 정도이고, 회의는 1200여 자, 그 나머지는 모두 형성이다. 그래서 ‘불어난 것이 많다.(「孳育者多也。」)라고 한 것이다.(「《說文》九千餘字, 合象形·指事, 僅三百八十餘字; 會意則一千二百餘字, 其餘形聲矣. 是孳育者多也。」)라고 하였다.(《설문해자구두》)

대나무와 비단에 쓴 기록을 ‘書(서)’라고 하는데, ‘書’란 ‘같다(如(여))’는 뜻이다.<sup>①</sup>(「箸於竹帛謂之書. 書者, 如也。」)

① ‘書’를 ‘如’라고 풀이한 것은 당시 한(漢)나라 때 유행하던 음훈법(音訓法)으로 풀이한 것이다.

참고로 ‘書’는 ‘聿(을)’을 의미부분으로 하고 ‘者(자)’를 받음부분으로 하는 형성자이다. ‘聿’은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모양을 그린 상형자이다. 즉 손으로 붓을 잡고(聿) 무엇인가를 쓰거나 그린다는 뜻의 글자이다.

5제(五帝)와 3왕(三王)<sup>①</sup>을 거치는 동안 고쳐지고 바뀌어 글자체가 달라졌다. 태산(泰山)에서 봉선(封禪)을<sup>②</sup> 한 것이 72대였는데<sup>③</sup>, (문자가) 같은 것이 없었다.(「以迄五帝三王之世, 改易殊體, 封于泰山者七十有二代, 靡有同焉。」)

① 3왕이란 하(夏)나라의 우왕(禹王), 은(殷)나라의 탕왕(湯王) 그리고 주(周)나라 문·무왕(文·武王)을 가리킨다.

② ‘封禪’이란 천자가 하늘과 땅에 제사를 올리는 일을 말한다. ‘封’은 흙을 봉긋하게 쌓아올려 하늘에 고하는 것이고, ‘禪’은 땅을 평평하게 고른 다음 땅에 고하는 것이다. ‘禪’은 ‘禪(선)’으로도 쓴다. ‘封’은 태산에서 하고, ‘禪’은 그 옆에 있는 태산

보다 낮은 양보산(梁父山)에서 거행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③여기서의 '72대'란 정확한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뜻이다.

[3]주(周)나라 제도에, 여덟 살에 소학교에 들어가고, 보씨(保氏)는<sup>①</sup> 국자(國子, 공경대부와 왕의 자제들)를 가르쳤는데, 우선 육서(六書)로써<sup>②</sup> 하였다.(「周禮: 八歲入小學, 保氏教國子, 先以六書.」)

①《주례·지관(地官)》보씨(保氏)조를 보면 “보씨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국자들을 도(道)로써 길러내는데, 이에 육예(六藝)를 가르쳤다. (6예란) 첫째는 5례(禮), 둘째는 6악(樂), 셋째는 5사(射), 넷째는 5어(馭), 다섯째는 6서(書), 여섯째는 9수(數)이다.(「保氏掌諫王惡, 而養國子以道, 乃教之六藝. 一曰五禮, 二曰六樂, 三曰五射, 四曰五馭, 五曰六書, 六曰九數.」)”라고 하였다.

②반고(班固, 32~92)는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에서 “옛날 8세에 소학교에 들어갔는데, 《주관(周官)》에 (이르기를) 보씨가 국자를 맡아서 양육(養育)하는데, 육서(六書)를 가르쳤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육서란) 상형(象形)·상사(象事)·상의(象意)·상성(象聲)·전주(轉注)·가차(假借)를 말하는데, 글자를 만드는 근본이다.(「古者八歲入小學, 《周官》保氏掌養國子, 教之六書, 謂象形·象事·象意·象聲·轉注·假借, 造字之本也.」)”라고 하였다.

그런데 《주례》에서 말한 ‘육서’가 《한서·예문지》에서 풀이한 ‘象形’·‘象事’ 등 문자의 구조 원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주문(籀文)·전서(篆書) 등 6가지의 글자체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동동화(董同龢, 1911~1963)는 “최근 장정량(張政烺)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례》의 육서 내용을 지사·상형 등 문자의 구조 원리로 본) 반고와 허신의 견해는 완전히 견강부회(牽強附會)로서, 《주례》의 ‘육서’는 원래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중양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 집간 제14본)(「據近人張政烺的考訂, 那完全是班許二氏的附會, 《周禮》之「六書」, 原來是另一回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集刊 第十四本)」)”라고 하였다.((문자의 발전과 「육서」(文字的演進與「六



書」))6)

허신이 말하고자 하는 육서와 《주례》에서 말한 육서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는 접어두고, 허신이나 반고가 말한 ‘육서’는 한(漢)나라 학자들의 문자 구조 분석 이론이다. 한나라 학자들이 말한 육서의 명칭과 순서는 완전히 같지는 않는데, 그것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반고: 상형(象形)·상사(象事)·상의(象意)·상성(象聲)·전주(轉注)  
·가차(假借)(《한서·예문지》)  
정중(鄭衆, ?~83): 상형·회의(會意)·전주·처사(處事)·가차·해성(諧聲)(정현(鄭玄, 127~200)의 《주례주(周禮注)》에서 재인용)  
허신: 지사(指事)·상형·형성(形聲)·회의·전주·가차(《설문해자·서》)

위 세 사람의 육서 명칭 가운데 상형·전주·가차 3서의 이름만 같고 나머지는 약간씩 다르다. 또한 배열 순서도 반고와 정중은 상형을 맨 앞에 놓았는데, 허신은 지사를 첫 번째로 놓았다. 이에 대해 양동한(梁東漢)은 “반고의 견해가 실제 상황과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당(唐)나라 이후 학자들이 허신을 존숭(尊崇)하여 그 후 1000여 년 동안 허신의 육서설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한자의 구조 및 그 변천(漢字的結構及其流變)》)7)

첫째는 지사(指事)이다.<sup>①</sup> 指事란 보아서 식별(識別)할 수 있고, 살펴면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sup>②</sup>, 上(상)과 下(하)가 그 예이다.<sup>③</sup>(「一曰指事. 指事者, 視而可識, 察而可見, 上下是也.」)

①지사자(指事字)는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순수한 부호 표시이다. 예를 들면 一(일)·二(이)·三(삼)·三(사)·上(상)·下(하) 등과 같은 글자들이다.

6) 정방신(丁邦新)편, 《동동화선생어언학논문선집(董同龢先生語言學論文選集)》, 대만: 식화(食貨)출판사, 1974년, p.327.

7) 向夏, 앞의 책, p.35에서 재인용.

다른 하나는 상형자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어떤 표시를 더해서 뜻을 나타내는 글자들이다. 예를 들면 本(본): 나무(木(목))의 밑둥을 표시, 末(말): 나무의 끝을 표시, 刃(인): 칼(刀(도))날을 표시, 亦(역): 사람(大(대))의 겨드랑이를 표시〔ハ〕한 것 등이다.

一·二·三·上·下 등과 같은 순수 부호성 지사자의 출현 시기는 상형자와 비슷하거나 앞섰을 것이고, 상형자에 어떤 표시를 더한 지사자들은 당연히 상형자보다 뒤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②《설문해자주》에서는 안사고(顔師古)의 《한서·예문지》주에 근거하여 ‘察而可見(찰이가견)’을 ‘察而見意(찰이견의)’로 썼다. 이렇게 되면 번역은 “살피면 뜻이 드러난다”로 된다.

③《설문해자주》에서는 ‘上下’를 고문(古文)인 ‘二二’로 썼다.

한편 왕균의 통계에 의하면 《설문해자》에 수록된 9,353자 가운데 지사자는 모두 129자라고 한다.((《설문석례(說文釋例)》) 이것은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둘째는 상형(象形)이다. 象形이란 그 사물을 그려내는데, 형체를 따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그려내)는 것으로<sup>①</sup>, 日(일)과 月(월)이 그 예이다.<sup>②</sup> (「二曰象形. 象形者, 畫成其物, 隨體詰詘, 日月是也.」)

①한자(漢字)는 그림에서 출발하여 선과 선을 규칙적으로 교차시키는 이른바 정형화(定型化)·규격화(規格化)·간단화(簡單化) 과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정식 문자로 변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상형자이다. 현재도 일반 사람들이 한자를 그림글자로 인식하게 하는 것 역시 상형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한자는 이미 많이 그림 글자 성격이 없어지고 또 필획이 간단하게 변했기 때문에 현재 글자를 보고 그것이 본래 무엇을 그린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어 日(일)·山(산)·水(수) 등과 같은 글자들은 변화가 많지 않아서 이 글자들이 본래 무엇을 그린 것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貝(패, 조개를 그린 것), 燕(연, 새를 그린 것), 衣(의, 옷의 깃과 소매 그리고 옷깃을 여민 모양을 그린 것), 丁(정, 못을 위에서 본 모양) 등 많은 상형자들은 지금의 글자체로는 원래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②왕균의 통계에 의하면 《설문해자》에 수록된 9,353자 가운데 상형자는 모두 264자라고 한다.《설문석례》 이것은 전체의 약 2.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셋째는 형성(形聲)이다. 形聲이란 일로써 글자를 만들고, 비슷한 소리를 취해서 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sup>①</sup>, 江(강)과 河(하)가 그 예이다.<sup>②</sup>(「三曰形聲. 形聲者, 以事爲名, 取譬相成, 江河是也.」)

①주조모(周祖謨)는 형성자의 출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는 부호이다. 이러한 수요에 잘 적응하려면 소리와의 결합은 필수적이다. 한자는 처음에는 먼저 상형자나 지사자가 있었지만 문자를 이용해서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근거로 해서 글자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상(商)나라의 갑골문에서도 이미 문자상의 동음가차(同音假借) 현상이 나타났고, 적지 않은 형성자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文字是記載語言的符號, 要能够很好地適應這種需要, 就必須與語音相結合. 漢字最初雖然先有象形字和表意字, 但要用文字來記錄語言, 就不能不根據語音來創造文字. 所以在商代的甲骨文裏既出現了文字上的同音假借, 又出現了不少的形聲字.」(《문학집(問學集)·한자의 탄생과 발전(漢字的產生和發展)》)<sup>8)</sup>

형성자는 의미부분과 발음부분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설문해자》에서는 이를 “從A, B聲”으로 표기하였다. 즉 ‘江’은 “從水, 工聲” 즉 “水(수)는 의미부분이고, 工(공)은 발음부분이다”라는 뜻이다.

②주준성(朱駿聲)의 통계에 의하면 《설문해자》에 수록된 9,353자 가운데 형성자는 모두 8,057자라고 한다.《설문통훈정성·육서효렬(說文通訓定聲·六書效列)》 이것은 전체의 약 86.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8) 周祖謨, 《문학집》, 북경: 중화서국(中華書局), 2004년, pp.8~9.

한편 향하(向夏)는 “남송(南宋) 시대 정초(鄭樵, 1103~1162)의 《육서략(六書略)》에 수록된 형성자는 21,810자이고, 그 나머지 5서(書)가 2,425자로, 형성자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육서략》에서 전주자(轉注字)로 분류한 372자는 실재는 형성자이므로, 이를 더하면 형성자의 비율은 94%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하였다.<sup>9)</sup>

넷째는 회의(會意)이다. 會意란 (같거나 다른) 종류의 글자를 나란히 하고 뜻을 합함으로써, 지향(指向)하는 바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으로<sup>①</sup>, 武(무)와 信(신)이 그 예이다.<sup>②</sup>(「四曰會意. 會意者, 比類合誼, 以見指撝, 武信是也.」)

①회의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의미상 관련이 있는 글자로 이루어진다. 《설문해자》에서는 이를 ‘從A, 從B’ 또는 ‘從A·B’로 표기하였다. 즉 ‘信’은 ‘從人, 從言’ 즉 “人(인)과 言(언)은 모두 의미부분이다”라는 뜻이다.

회의자는 그 구성상 같은 글자를 겹쳐 쓰는 것과 다른 글자를 합해서 쓰는 것 두 종류로 나뉜다.

1) 같은 글자끼리 겹쳐 쓰는 것

林(수풀 림), 炎(불탈 염), 晶(밝을 정), 𠂔(잡풀 우거질 망);  
𠂔(부르짖을 흰), 品(물건 품), 𠂔(여러 사람의 입 집) 등.

2) 다른 글자를 합해서 쓰는 것

取(취할 취): 손[又(우)]으로 귀[耳(이)]를 취하는 모양.

宿(잘 숙): 사람[人(인)]이 집 안[宀(면)]에서 돛자리[百(백)은 돛자리의 변형]를 펴고 누워있는 모양.

正(정) 즉 征(칠 정): 어떤 목적지[一]로 가는[止(발 지)] 것.

嵩(높을 승): 高(높을 고) + 山(되 산),

臭(냄새 취): 개[犬(견)]가 코[自(자)]로 냄새를 맡는다는 뜻 등.

②왕균의 통계에 의하면 《설문해자》에 수록된 9,353자 가운데 회의자는 모

9) 向夏, 앞의 책, p.60.

두 1,254자라고 한다.《설문석례》 이것은 전체의 약 13.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섯째는 전주(轉注)이다. 轉注란 같은 종류끼리 모아 놓고 하나를 머리 글자로 삼되, 같은 뜻이면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考(고)와 老(로)가 그 예이다.<sup>①</sup>(「五曰轉注. 轉注者, 建類一首, 同意相受, 考老是也.」)

①전주는 허신이 위와 같이 정의한 이래 역대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하여 왔고, 현재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에서는 동부호훈(同部互訓)설에 따라 해석을 하였다.<sup>10)</sup>

여섯째는 가차(假借)이다. 假借란 본래 그 글자가 없어서 소리에 의지하여 일을 맡기는 것으로, 令(령)과 長(장)이 그 예이다.<sup>①</sup>(「六曰假借, 假借者, 本無其字, 依聲托事, 令長是也.」)

①당란(唐蘭)은 “가차는 그 이치가 매우 명백하다. 허신이 말한 그 글자가 없어서 발음이 비슷한 글자를 빌려 쓴 것이라는 해석은 아주 잘된 설명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를 잘못 들었다. 허신이 예로 든 ‘令’과 ‘長’ 두 글자는 뜻의 ‘인신(引伸)’이지 결코 소리의 ‘가차’가 아니다. 예를 들어 ‘隹(추)’가 새를 그린 글자에서 발어사(發語詞)로 가차되어 쓰인다거나(이것은 양주(兩周) 금문에서의 용법을 가리킨다), ‘其(기)’가 쌀을 까부르는 키(箕(기))를 그린 글자에서 대명사로 가차되어 쓰인다는가 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가차이다.”라고 하였다.《중국문자학(中國文字學)》<sup>11)</sup>

이 밖에도 가차자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글자들이 있다.

10) 전주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줄고(拙稿), 〈허신전주설탐토(許慎轉注說探討)〉, 《문경(文鏡)》 창간호, 연세중어중문학회 1989년, pp.147~161과.

줄고, 〈現行中·高 漢文教科書 字形分析 問題點 研究 — 轉注의 정의, 之자의 용법, 補語의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7호, 중국어문학연구회 1995년, pp.517~524 참조.

11) 唐蘭, 《중국문자학》, 상해: 고적출판사(古籍出版社) 2001년, pp.63~64.

- 難(난): 새의 이름을 뜻하는 형성자 → 어렵다  
 能(능): 꿈을 그린 상형자 → 가능하다  
 來(래): 보리를 그린 상형자 → 오다  
 我(아): 창 의 일종을 뜻하는 회의자 → 나(1인칭 대사)

[4](주(周)나라) 선왕(宣王)에 이르러 태사(太史) 주(籀)<sup>①</sup>가 대전(大篆) 15편(篇)을 지었는데<sup>②</sup>, 고문(古文)과 간혹 다른 것이 있었다.<sup>③</sup>(「及宣王太史籀著大篆十五篇, 與古文或異.」)

①단옥재는 “太史는 벼슬 이름이고, 籀는 사람 이름이다. 이 둘을 줄여서 ‘사주(史籀)’라고 부른다.(「太史, 官名; 籀, 人名也. 省言之曰史籀.」)”라고 하였는데(《설문해자주》), 과연 ‘籀’가 사람의 이름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쪽과 인정하지 않는 쪽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먼저 인정하지 않는 쪽의 사람으로는 왕국유(王國維)가 있다. 그는 ‘籀’는 ‘읽는다는 뜻으로 ‘讀(독)’자와 같은 글자라고 하였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반고의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와 허신의 《설문해자·서》에서 ‘사주(史籀)’가 주나라 선왕(B.C.828~B.C.782 재위) 시대의 태사라고 하였는데, 그 설은 대체로 유향(劉向, B.C.77~B.C.6)·유흠(劉歆, B.C.53~A.D.23) 부자(父子)에서 나와서 반고와 허신이 따른 것으로, 2000년 동안 다른 주장이 없었다. 그런데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설문해자》에서 말하기를 ‘籀는 읽는다는 뜻이다.(「籀, 讀也.」)’라고 하였고, 또 ‘讀은 책을 읽는다는 뜻이다.(「讀, 籀書也.」)’라고 하였으니, 옛날에 ‘籀’와 ‘讀’ 두 글자는 동음(同音) 동의(同義) 관계였다. …… 옛날에 책을 읽는 일은 사관(史官)의 전문 영역이었다. 옛사람들은 자서(字書)를 지을 때 그 첫머리에 대개 ‘태사주서(太史籀書)’라고 한 다음 글을 써 내려갔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 첫머리의 구절을 취하여 ‘史籀’ 두 글자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太史籀書’란 ‘太史讀書’와 같은 말이다. 《사기(史記)》〈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서도 ‘석실(石室)과 금궐(金匱)의 책을 읽었다.(「紬石室金匱之書.」)’라고 하여 이 말을 썼다. 유향·반고 등 여러 사람들이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史籀’를 이 책을 지은 사람이라고 여겨서, 그 벼슬이 ‘태사’이고 또 그가 선왕 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타당한 일이 아니다.”(《관당집림(觀堂集林)·사주편소증서(史籀篇疏證序)》)<sup>12)</sup>

이에 대해 당란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우리들이 현재 비록 ‘사주편(史籀篇)’은 볼 수 없지만, 《설문해자》에 몇 백자는 여전히 수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일종의 매우 복잡한 문자임은 알 수 있다. 그것은 서주(西周) 여왕(厲王, B.C.878~B.C.828 재위)·선왕(宣王) 시기의 문자와는 다르고, 오히려 춘추(春秋, B.C.770~B.C.476)에서 전국(戰國, B.C.475~B.C.221) 시대 초기 동기(銅器)에 새겨진 문자와 매우 가깝다. 진공괘(秦公簋)와 석고문(石鼓文)도 모두 이 계열에 속한다. 왕정안(王靜安, 즉 왕국유) 선생께서 이것들을 서쪽 지역의 문자라고 여긴 것도 확실히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왕선생께서 ‘史籀’를 책 이름으로 여긴 까닭이 ‘太史籀書’라는 말에서 두 글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비약이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한서(漢書)·고금인표(古今人表)》에 ‘史籀’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수창(周壽昌, 1814~1884)<sup>13)</sup>은 바로 이 사람이 그 ‘史籀’라고 하였고, 왕선겸(王先謙, 1842~1917)도 주수창의 견해에 찬동하면서 시대는 〈고금인표〉보다 약간 뒤라고 하였다. 〈고금인표〉에서는 ‘史籀’를 춘추전국 시대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정확히 《사주편》이 출판된 시기이다. 그렇지만 본인은 〈예문지주(藝文志注)〉에서 밝히고 있는 주나라 선왕은 원왕(元王, B.C.476~B.C.469 재위)이 아닌가 생각한다. ‘元’과 ‘宣’은 발음이 비슷해서 잘못 쓴 것인데, 후세에 모두 ‘宣王’이라고 하니까 모두 이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한 글자만 바로 잡으면 ‘史籀’는 곧 (사람 이름인) ‘史籀’가 되고,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정리하면, 춘추에서 전국 초기의 문자는 곧 이른바 대전(大篆)이고, ‘史籀篇’은 대전의 일종일 뿐이다.”<sup>14)</sup>

12) 王國維, 《관당집림》, 대만: 세계서국(世界書局) 1983년, pp.252~253.

13) 주수창은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 사람으로, 도광(道光, 1821~1850) 때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역사학에 정통하였다. 저서로는 《한서주교보(漢書注校補)》·《후한서주교정(後漢書注補正)》·《삼국지주증유(三國志注證遺)》 등이 있다.

14) 唐蘭, 앞의 책, pp.134~135.

그런데 向夏는 왕국유가 ‘史籀’를 책의 이름이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고 한 것도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하고, 또 당란이 ‘宣王’을 ‘元王’의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도 억측이라고 하였다. (《설문해자서강소(說文解字叙講疏)》)<sup>15)</sup>

②《한서·예문지》에서는 “《사주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周)나라 때 사관(史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글자 공부를 시키던 책으로, (그 글자는) 공자 벽중서(壁中書)의 고문(古文)과는 다른 글자체로 쓰였다. (『《史籀篇》者, 周時史官教學童書也. 與孔子壁中古文異體.』)”라고 하였는데, 반고는 “주나라 선왕(宣王) 때 태사가 《대전(大篆)》 15편을 지었는데, 건무(建武, 25~56, 동한 광무제(光武帝)의 연호) 때에 6편이 없어졌다. (『周宣王太師作《大篆》十五篇, 建武時亡六篇.』)”라고 주를 하였다.

③《설문해자계전》에는 ‘古文(고문)’과 ‘或異(혹이)’ 사이에 ‘或同(혹동)’ 두 글자가 더 있다. 이에 따르면 이 글귀는 “고문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였다”로 번역된다.

중국 고대 글자체의 명칭으로, ‘古文’이라고 할 때는 넓은 의미의 고문과 좁은 의미의 고문이 있다.

넓은 의미의 고문은 한(漢)나라 때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사용되는 이름으로, 진(秦)나라가 문자를 통일하기 이전에 있었던 문자 즉 갑골문(甲骨文)·금문(金文)·주문(籀文) 그리고 전국(戰國)시대 진나라를 제외한 여섯 나라에서 통행되던 문자(즉 6국문자)를 통칭한다. 일설에는 예서(隸書)를 금문(今文)이라고 부르는데 근거하여, 소전(小篆)을 포함하여 예서 이전의 모든 글자체를 고문이라고 하기도 한다.

좁은 의미의 고문은 《설문해자》에서 ‘古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글자들을 말한다. 《설문해자》에서는 주문(籀文)과 고문 2가지의 이체자(異體字)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고문이란 한(漢) 무제(武帝) 말기에 노(魯)나라 공왕(恭王, B.C.155~B.C.129 재위)이 공자의 옛날 집을 확충하고자 허물었을 때 그 벽 속에서 나온 《예기(禮記)》·《상서(尙書)》·《춘추(春秋)》·《논어(論語)》·《효경(孝

15) 向夏, 앞의 책, p.139.



經》 등에 쓰였던 글자체를 포함한 6국문자를 가리킨다.

공자(孔子)가 육경(六經)을 쓰고<sup>①</sup>, 좌구명(左丘明)이 《춘추전(春秋傳)》을 서술할 때에는 모두 고문(古文)으로 썼기 때문에<sup>②</sup>, 그 뜻을 얻어서 설명할 수 있었다.<sup>③</sup>(「至孔子書六經, 左丘明述《春秋傳》, 皆以古文, 厥意可得而說.」)

① 육경이란 《역(易)》·《서(書)》·《시(詩)》·《예(禮)》·《악(樂)》·《춘추(春秋)》 등을 가리킨다.

② '고문'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장선국(蔣善國)은 “고문이라는 이름은 대략 서한(西漢) 때 비로소 있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고문'이라고 하면 한(漢)나라의 '금문(今文, 즉 예서)'과 대칭되는 개념의 '고문'을 의미하였다. 문자 자체로 말하자면 전국(戰國)시대 이전의 글자를 가리킨다.(우리들은 현재 이 '고문'을 전국 시대의 문자로 간주한다.) 한나라 때의 고문경전(古文經傳)은 공자 벽중서(壁中書)의 고문과 장창(張蒼)이 헌상(獻上)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이 중심이다.”라고 하였고(《한자형체학(漢字形體學)》)<sup>16)</sup>, 왕국유는 “《설문해자》 안에서 정자(正字)와 중문(重文)으로 쓰인 고문은 벽중서와 《춘추좌씨전》을 벗어난 것은 없다. 몇 글자는 금문경(今文經)에도 보이지 않는데, 이것들은 일경(逸經) 중에 있는 글자이거나 아니면 고금경(古今經)의 글자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其全書中, 正字及重文之古文, 當無出壁中書及《春秋左氏傳》以外, 卽有數字不見於今文經, 亦當在逸經中, 或因古今經有異同之故.」)”라고 하였다.(《관당집림(觀堂集林)·설문소위고문설(說文所謂古文說)》)<sup>17)</sup>

③ 왕균(王筠)은 “내 생각에, 여기에서 '그 뜻[厥意(꺠의)]'이란 글자의 뜻을 말한다. 공자와 좌구명은 모두 고문으로 써서 그 글자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다음 문장에서 진(秦)나라는 소전을 써서 점점 (그 뜻이) 어긋나게 되었고, 또 예서가 생겨나니 더욱더 멀어지고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16) 위의 책, p.142에서 재인용.

17) 王國維, 앞의 책, p.317.

그래서 고문은 이로 인해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한 것이다. (「均案: 厥意指字義而言. 孔子左氏既用古文, 字義自然可說, 所以起下文, 秦用小篆, 漸有違矣, 又有隸書, 更多乖異. 故曰古文由此絕.」) ”라고 하였다. (《설문해자구두》)

그 후 제후들이 정치에 힘을 쏟아 왕에 의해 통치되지 않게 되고, 예악(禮樂)이 자신에게 해(害)가 되는 것을 싫어하여 모두 그 전적(典籍)들을 없애 버렸다. (천하가) 일곱 개의 나라로 갈라지면서<sup>①</sup>, 전답은 면적 단위가 달라졌고, 수레와 길은 폭이 달라졌고, 율령은 법이 달라졌고, 의관(衣冠)은 규격이 달라졌고, 말은 소리가 달라졌으며, 문자는 모양이 달라졌다. (「其後諸侯力政, 不統於王, 惡禮樂之害己, 而皆去其典籍. 分爲七國, 田疇異畝, 車涂異軌, 律令異法, 衣冠異制, 言語異聲, 文字異形.」)

① 일곱 개의 나라란 전국(戰國)시대의 한(韓), 조(趙), 위(魏), 연(燕), 제(齊), 초(楚) 그리고 진(秦)나라를 가리킨다.

#### 〈參考文獻〉

- 정복보(丁福保) 편, 《설문해자고림(說文解字詁林)》, 대만: 정문서국(鼎文書局), 1984.  
 당란(唐蘭), 《중국문자학(中國文字學)》, 상해: 고적(古籍)출판사, 2001.  
 러사면(呂思勉), 《문자학사종(文字學四種)》, 상해: 교육(教育)출판사, 1985.  
 왕국유(王國維), 《관당집립》, 대만: 세계서국(世界書局), 1983.  
 정방신(丁邦新) 편, 《동동화선생어언학논문선집(董同龢先生語言學論文選集)》, 대만: 식화(食貨)출판사, 1974.  
 주조모(周祖謨), 《문학집(問學集)》, 북경: 중화서국(中華書局), 2004.  
 탕가경(湯可敬), 《설문해자금석(說文解字今釋)》(상)(하), 악록서사(岳麓書社), 2005.  
 향하(向夏), 《설문해자서강소(說文解字敍講疏)》, 홍콩: 중화서국, 1986.

〈中文提要〉

东汉许慎所著《说文解字》是中国文字学史上第一分析字形、说解字义、辨识声读的字典,对传统语言学的形成和发展起了巨大作用;同时,也是研究中国语言、古代典籍和传统文化的重要参考文献。历代学者都很重视对《说文解字》的研究,形成了一门独特的学问“说文学”。

《说文解字·叙》是理解和掌握正文的纲目。《序》不仅对《说文解字》部首及汉字的编排原则进行了说明,而且对以下五个方面的内容进行了概述。一、叙述作者著书的动机和目的;二、阐述周代以前文字的源流;三、介绍自周代到秦文字的演变和汉代以后文字的概况及其研究状况;四、提示六书的定义和用例;五、说明创作部首的意义和体例。

《说文解字·叙》大约由十五个段落构成。但因篇幅有限,本<译注>只注解第一段落到第四段落。此四段具体内容如下:

第一、汉字的起源:许氏首先将庖牺氏之八卦纳入了文字萌芽范围,之后述及神农结绳和仓颉造字。再次,许氏假借仓颉造字,将文字的产生根源及功用归于政教,即宣扬教令,倡导风范,助君王施政。

第二、在中国文字史上许氏首次明示‘文’与‘字’的具体内容和两者的关系。许氏谈“文、字、书”,并交代文字迭有发展。‘文’,初之“依类象形”者;‘字’,後之“形声相益”者;‘书’则“如也”。

第三、六书之定义与其例:许氏对“六书”,不仅予以命名,在条目上指出象形者、指事者、形声者、会意者、转注者、假借者,而且还对其进行了具体的解说。

第四、字体的变移:周宣王时史籀大篆,大篆同古文有了差异,再经战乱,七国法律、条令不一,文字异型。

關鍵詞: 許慎,《說文解字》〈敘〉譯註 上, 第一段落到第四段落

이 논문은 2014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5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5월 20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